

## 補中益氣湯證의 病因論적 분석을 위한 說問問項 開發

윤태득 · 박영재 · 박영배 · 이상철\* · 오환섭

경희대학교 학과간협동과정 한방인체정보의학과, \*그리스도대학교 경영정보학부

### [ Abstract ]

### Development of Questionnaires for Pathogenesis Analysis of Bojungikgitang Symptom

Tae-deug Yoon, Young-Jae Park, Young-bae Park, Sang-chul Lee\*, Hwan-Sup Oh

*Dept. of Human Informatics of Oriental Medicine Interdisciplinary Programs of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Korea Christian University*

#### Background:

Bojungikgitang is one of the most common herbs in oriental medicine. Principally, this medicine heals illness from overwork and stress. Therefore, it is frequently used in the ancient community. Because of insufficiency in data, objective judgements are difficult in remedial effects by Bojungikgitang. In order to make objectivity diagnose data, this research is developed.

#### Purpose: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make questionnaire for the medicine and the objective is to sell to the public from the local clinic.

#### Methods: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symptoms and signs for diagnose of Bojungikgitang is studied by the Delphi method and average value.

#### Results:

By the Delphi method and average value, 25 Items of questionnaires are choosen for the research.

#### Conclusion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for modification of questionnaire by statistics and certification by clinical trial. The statistics and verification by clinical trial is necessary with modification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Delphi method, questionnaire, Bojungikgitang

\* 교신저자 : 박영재 / 소속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과학교실

TEL : 02-440-6233 / E-mail : bmpomd@paran.com

## I. 緒 論

勞倦이란 지나치게 일하거나 思慮過度 혹은 房室過度 등으로 인해 形體의 피곤과 臟腑機能 및 氣器活動의 손상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sup>27)</sup> 李東垣은 內外傷辨惑論<sup>20)</sup>에서 喜怒憂恐 勞役過度하여 耗傷元氣하면 脾胃虛衰로 元氣가 부족하여 心火獨盛을 일으킨다 하였다. 이는 勞倦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심리적, 육체적인 과로로 인해 氣虛가 된다는 말이다. 勞倦은 한의학 辨證체계의 하나인 病因論의 일부분이다.

病因論이란 병의 症狀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原因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病因論은 병의 原因을 크게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나눈다(Figure 1). 外因은 外感과 飲食傷이 해당되고, 內因은 食積, 勞倦, 房勞, 七情, 痰飲, 瘀血이 해당되며, 不內外因은 外傷이 해당된다. 病因論은 역사학적으로 볼 때 역대 의가들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外感은 장중경이 완성하였고, 內傷은 金元四大家에 이르러 보완되었다. 여기에 八綱인 陰陽表裏寒熱虛實의 개념을 추가하여 病因論이 완성되었다. 수많은 원전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病因論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중 임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內因이다. 內因 중에서 勞倦은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를 살면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잘 부합되는 개념이다.

病的 原因에 대한 연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病的 原因을 밝히는 것은 치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原因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症狀은 달라도 原因이 같으면 치료법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病因論에 입각한 辨證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勞倦에 대한 평가를 위해 病因論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임상에서 유효하다. 왜냐하면 症狀이 아니라 原因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補中益氣湯은 勞倦을 치료하는 대표처방이다. 補中益氣湯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의 補中益氣湯과 그 가감방이 항알레르기 및 항균작용에 미치는 영향<sup>15)</sup>, 김의 補中益氣湯의 항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sup>16)</sup>, 강의 補中益氣湯이 면역세포 배양에 미치는 영향<sup>17)</sup> 등이 있다. 정 등은 동물실험에서 補中益氣湯 엑기스 투여 후 Histamin, serotonin에 의한 혈관투과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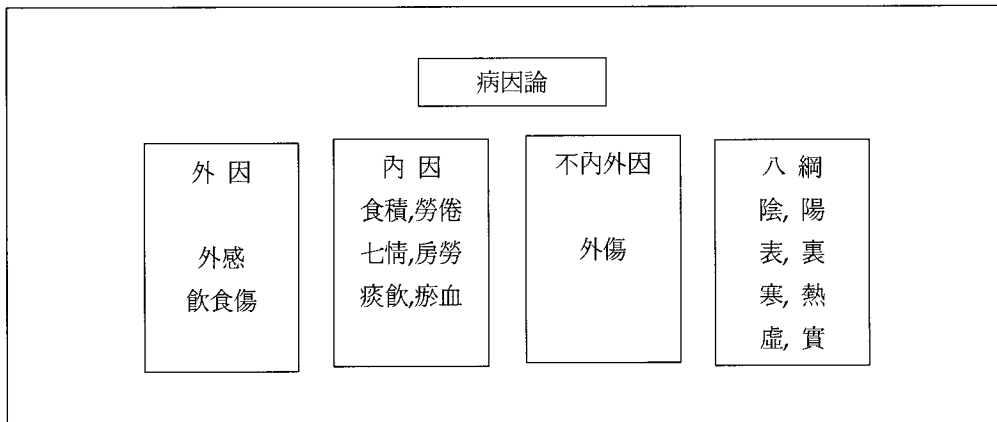


Figure 1. 病因論의 개요

응, 노중 catecholamine 함량 측정, 실험동물의 비장세포 증식의 측정 등을 통해 항알레르기, 항균, 항스트레스, 면역세포 배양 등이 유효하다고 검증하였다.<sup>15-17)</sup> 하지만 이런 증후중심적인 연구들은 補中益氣湯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勞倦에 대한 病因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補中益氣湯證을 중심으로 설문을 개발하는 것이 補中益氣湯證의 임상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Delphi 기법<sup>19)</sup>이란 현재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한 경우 영향력 있는 전문가 집단의 직관과 의견을 존중하는 연구기법으로 feedback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표준 병인 補中益氣湯證 설문지 개발의 전단계로서, 病因論을 근거로 설문

문항을 개발, 이를 Delphi 기법을 통해 정리, 보완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설문 문항 선정

補中益氣湯 변증 설문 문항 개발에 앞서 湯證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景岳全書, 醫學入門, 東醫寶鑑, 病因病機學, 病因論 등 5종의 의서를 참조하였다. 각각의 문헌들에서 補中益氣湯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을 검색한 뒤 각각의 조문들을 실제 임상에서 쓰는 질문형식으로 전환하였다(Table 1).

각각의 문헌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양한

Table 1. 동의보감 조문 정리

- |                           |  |
|---------------------------|--|
| 1. 식사를 제시간에 맞춰서 합니까?      | 30. 전신이 저리고 감각이 적습니까?                              |
| 2. 식사량이 일정하십니까?           | 31. 자궁이 뒹어 나왔습니까?                                  |
| 3. 일을 무리하게 많이 하십니까?       | 32. 성교 후에 출혈과 통증이 있습니까?                            |
| 4. 일 하는 시간이 불규칙 합니까?      | 33. 향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
| 5. 소화가 잘 됩니까?             | 34. 몸이 피곤하고 축 쳐지면서 힘이 없습니까?                        |
| 6. 입 맛이 없습니까?             | 35. 뉘뉘거나 초여름에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입맛이 없고, 열이 납니까? |
| 7. 허기가 빨리 듭니까?            | 36. 몸이 피곤하며 자꾸 눕고 싶고 사지가                           |
| 8. 식사를 못 하면 힘이 듭니까?       | 37. 늘어져 움직이는데 힘이 없습니까?                             |
| 9. 몸이 피곤합니까?              | 38. 잘 먹지 못하면서 열이 나며 땀이 나고                          |
| 10. 몸이 나른하고 권태롭습니까?       | 39. 숨이 찰니까?  |
| 11.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하고 피곤합니까?  | 40. 때가 되면 한 번씩 열이 나면서 입은 마르나 갈증이 나지는 않습니까?         |
| 12. 환절기가 되면 더 심해집니까?      | 41. 하루 종일 열이 납니까?                                  |
| 13. 노환으로 온 병입니까?          | 42. 열이 낮에 심하고 밤에 덜 합니까?                            |
| 14. 말을 오래하면 힘이 듭니까?       | 43. 구토, 설사 후에 기운이 없습니까?                            |
| 15. 오랫동안 혈변을 보았습니까?       | 44. 과음한 후에 두통, 현훈, 구도가 있습니까?                       |
| 16.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납니까?      | 45.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하고 잠이 옵니까?                          |
| 17. 활동하면 땀이 더 많이 납니까?     | 46. 일을 많이 하고 나서 감기에 잘 걸립니까?                        |
| 18. 땀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납니까?     | 47. 팔 다리에 힘이 없고 나른하며 열이 나면서 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
| 19.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 48. 설사 후에 기침을 합니까?                                 |
| 20. 소변을 보기가 힘들습니까?        | 49. 식욕이 없으면서 팔다리가 무겁고 피곤합니까?                       |
| 21. 소변 색깔이 뿌옇고 탁합니까?      | 50. 오랫동안 설사 한 후 붓습니까?                              |
| 22. 음경이 가렵고 白津이 나옵니까?     | 51. 학질이 낮에 나타납니까?                                  |
| 23. 소변에 대변이 섞여 나옵니까?      | 52. 용지가 있으면서 가래가 있습니까?                             |
| 24. 물 마신 후에 바로 소변을 보니까?   | 53. 임신 중에 일을 많이 해서 아랫배가 빠지는 것 같습니까?                |
| 25. 오랫동안 설사를 합니까?         | 54. 출산 후에 음부가 아래로 빠졌습니까?                           |
| 26. 설사를 간헐적으로 합니까?        | 55. 아이가 5세가 되어도 말을 잘 하지 못 합니까?                     |
| 27. 오랫동안 이질을 앓았습니까?       |  |
| 28. 과로 후에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  |
| 29. 과로 후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까? |  |

症狀들에 補中益氣湯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勞倦의 개념들, 즉 喜怒憂恐 勞役過度에 관련된 항목들이다. 예를 들면 ‘일을 무리하게 합니까?’, ‘몸이 피곤합니까?’, ‘화가 자꾸 납니까?’,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부분적인 症狀들이다. 예를 들면 ‘소화가 잘 됩니까?’, ‘입맛이 없습니까?’,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설사를 합니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소변 색깔이 뿌옇게 나오니까?’, ‘땀이 많이 납니까?’, ‘종기가 터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까?’, ‘전신이 저리고 감각이 적습니까?’, ‘산후에 음문이 빠졌습니까?’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의서들을 검색하여 만든 설문 문항들 중 중복되거나 임상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하여 총 34개의 설문문항을 만들었다(Table 2). 이를 토대로 대한병인학회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형식은 Delphi방법에 의해 각 설문문항에 채점을 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이때 각 설문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평가하고 설문 항목 이외에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Appendix 참조).

1차 설문 조사는 2007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34개 설문문항에 대해 대한병인학회 소속 정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회원들의 평균 임상 경력은 10년이었다. 설문 전송과 취합은 E-mail과 Fax를 통해 실시하였다.

2차 설문 조사는 1차 설문 조사에서 평균점이 4.0 이상인 항목들로 설문문항들을 수정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Appendix 참조) 이를

Table 2. 설문 문항

질문	질문
1. 식사를 제 시간에 합니까?	18.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까?
2. 식사량이 항상 일정합니까?	19.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서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3. 식사를 거르면 힘이 쭉 빠집니까?	20. 커피를 자주 흘립니까?
4.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하고 피곤합니까?	21. 목이 자주 잠집니까?
5. 소화가 잘 됩니까?	22. 감기에 자주 걸립니까?
6. 입맛이 없습니까?	23. 감기가 오랫동안 낫지 않습니까?
7. 평소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습니까?	24. 소변 색깔이 진하십니까?
8. 체력에 비하여 일을 무리하게 많이 합니까?	25. 소변 색깔이 뿌옇고 탁하십니까?
9. 몸이 항상 피곤하고 나른합니까?	26.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10.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합니까?	27. 설사를 자주 합니까?
11.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28.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12.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니까?	29. 항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13. 일 하고 나면 몸이 아릅니까?	30. (임산부의 경우) 임신중에 복통, 하혈이 있습니까?
14. 땀이 많이 납니까?	31. (부인의 경우) 생리가 아닌데도 하혈이 있습니까?
15. 일을 하면 숨이 찰니까?	32. (부인의 경우) 생리량이 아주 많습니까?
16. 몸에서 열이 자주 납니까?	33. (산모의 경우) 출산 후 음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17.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34. (소아의 경우) 5세가 지나도 말을 잘 못합니까?

위해 2007년 6월 10일 대한병인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한 정회원 27명과 참석하지 못한 병인학회 정회원 26명까지 총 53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임상경력은 8.3년이었다. 설문 형식, 전송과 취합은 1차와 동일하다.

### Ⅲ. 설문 조사 결과

#### 1) 1차 설문 조사

1차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해 평균점을 구하였다(Table 3). 평균점이 6.0 이상인 항목은 2개 문항이며, 5.0 이상은 10개 문항, 4.0 이상인 항목은 13개 문항이 나왔다. 평균점이 4.0 미만인 항목들은 모두 9개 문항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들 대부분 勞役過度, 脾胃虛損, 元氣不足 등과 같은 노권의 개념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개별 症狀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는 개별 症狀만으로는 노권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症狀이 아니라 原因에 따라 치료한다는 病因論의 이론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작성한 내용들 중에 특별히 추가할 사항은 없었고 29번 '항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문항과 33번 '(산모의 경우) 출산 후 음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문항들에 대해서 임상에서는 실제로 빠지는 경우보다 빠지는 느낌만 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두 개 문항을 각각 '항문이 아래로 빠지거나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까?'와 '(산모의 경우) 출산 후 음문이 아래로 빠지거나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까?'로 수정하여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3. 1차 설문 결과

질문	평균	질문	평균
8. 체력에 비하여 일을 무리하게 합니까?	6.50	5. 소화가 잘 됩니까?	4.36
3. 식사를 거르면 힘이 쭉 빠집니까?	6.00	15. 일을 하면 숨이 찰니까?	4.32
23. 감기가 오랫동안 낫지 않습니까?	5.92	16. 몸에서 열이 자주 납니까?	4.28
9. 몸이 항상 피곤하고 나른합니까?	5.74	20. 코피를 자주 흘립니까?	4.26
33. (산모)출산 후 음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5.72	1. 식사를 제 시간에 합니까?	4.24
22. 감기에 자주 걸립니까?	5.64	21. 목이 자주 잠립니까?	4.18
19. 말을 많이하면 힘들어서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5.62	10.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합니까?	4.04
14. 땀이 많이 납니까?	5.44	18.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까?	4.00
7. 평소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습니까?	5.30	32. (부인) 생리 량이 아주 많습니까?	3.78
29. 항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5.30	34. (소아)5세가 지나도 말을 잘 못합니까?	3.76
13. 일 하고 나면 몸이 아릅니까?	5.12	24. 소변 색깔이 진하십니까?	3.76
6. 입맛이 없습니까?	5.08	27. 설사를 자주 합니까?	3.72
4.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하고 피곤합니까?	4.90	17.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3.66
12.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습니까?	4.80	2. 식사량이 항상 일정합니까?	3.64
31. (부인의)생리가 아닌데도 하혈이 있습니까?	4.74	25. 소변 색깔이 뿌옇고 탁하십니까?	3.32
11.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4.56	26.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2.86
30. (임산부)임신 중에 복통, 하혈이 있습니까?	4.38	28.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2.76

2) 2차 설문 조사

2차 설문 조사는 2007년 6월 10일에서 6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1차 설문조사에서 평균점 4.0 미만인 항목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2차 설문조사에서는 평균점 4.0 미만인 항목은 없었다. 평균점 6.0 이상인 항목은 2개며, 평균점 5.0 이상인 항목은 14개, 4.0 이상인 항목은 9개가 나왔다. 평균점 5.0 이상인 항목이 1차 때 보다 4개가 늘어났으나 큰 차이는 없다(Table 4).

2차 설문 조사에서는 모든 항목들이 평균점 4.0을 넘어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1차 설문 조사와 마찬가지로 원인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개별 증상에 대한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두 번의 설문 조사에서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객관성이 있는 설문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IV. 고찰

辨證이란 환자가 호소하는 症狀과 徵候를 四診을 통해 분석, 종합함으로써 질병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의학적 진단방법을 말한다.<sup>1)5)</sup> 질병의 본질, 즉 原因이 파악되면 症狀과 治療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미 수많은 醫家<sup>21)26)</sup>들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한의학의 변증체계가 세워졌다. 病因論<sup>14)</sup>도 다른 변증법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한 辨證체계이다.

病因論<sup>14)</sup>은 병의 原因을 크게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구분한다. 外因에는 外感和 飲食傷이 해당되고, 內因은 食積, 勞倦, 七情, 房勞, 痰飲, 瘀血이 해당된다. 不內外因은 外傷이 해당된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역대 의가들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토대로 완성되었다. 그 처음은 장증경에 의해 外感의 변증체계가 확립되었다. 그 후 內傷이 金元四大家에 의해 보완되었고 八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辨證체계가 일단락

Table 4. 2차 설문 결과

질문	평균	질문	평균
7. 체력에 비하여 일을 무리하게 많이 합니까?	6.55	23. (임산부의 경우)임신 중에 복통, 하혈이 있습니까?	5.13
21. 감기가 오랫동안 낫지 않습니까?	6.08	5. 입맛이 없습니까?	5.09
2. 식사를 거르면 힘이 쭉 빠집니까?	5.96	3.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하고 피곤합니까?	5.06
20. 감기가 자주 걸립니까?	5.91	14. 일을 하면 숨이 찹니까?	5.00
8. 몸이 항상 피곤하고 나른합니까?	5.85	11.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습니까?	4.91
17.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서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5.64	9.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합니까?	4.87
22. 향문이 아래로 빠지거나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5.60	15. 몸에서 열이 자주 납니까?	4.85
25. (산모의 경우)출산 후 음문이 빠지거나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5.60	18. 코피를 자주 흘립니까?	4.81
12. 일 하고나면 몸이 아릅니까?	5.51	10.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4.72
13. 땀이 많이 납니까?	5.49	4. 소화가 잘 됩니까?	4.58
6. 평소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습니까?	5.28	19. 목이 자주 잠집니까?	4.45
24. (부인의 경우)생리가 아닌데도 하혈이 있습니까?	5.19	1. 식사를 제 시간에 합니까?	4.43
		16.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까?	4.17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東醫寶鑑<sup>22)</sup>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그 방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方藥合編이 나왔다. 오늘날 많은 임상가들이 方藥合編<sup>23)</sup>을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辨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또한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蓋然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辨證의 객관성과 정량화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의학의 발전은 어렵게 된다. 辨證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단방법에서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四診 중에서는 問診이 가장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病因論을 토대로 問診시 활용할 설문 문항 개발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는 한의 증후연구 동향분석<sup>31-33)</sup>, 박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변증 정량화 연구<sup>9)</sup>, 김의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타당화 연구<sup>13)</sup>, 김의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sup>3)</sup>, 양의 어혈변증 설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sup>11)</sup>, 박의 담음변증 설문지 개발<sup>19)</sup>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辨證의 개념 정리에 대한 논문들이라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辨證의 객관화와 정량화를 도모하면서 임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病因論을 기초로 하고 病因論 중에서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勞倦을 선택하였다.

勞倦이란 지나치게 일하거나 思慮過度 혹은 房室過度 등으로 인해 形體의 피곤과 臟腑機能 및 氣器活動의 손상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勞倦은 특히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의 특징과 잘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

勞倦을 치료하는 대표 처방은 補中益氣湯이다.<sup>20)</sup> 補中益氣湯은 A.D. 1249년 金元四大家의 한 사람인 李東垣<sup>20)</sup>이 脾胃論에서 처음 소개한 처방

으로 東垣曰 內經에 損者益之 勞者溫之라 하여 본 처방을 入方하였으며 勞役太甚하고 飲食失節로 인한 身熱而煩 自汗 倦怠를 治한다고 하였다. 補中益氣湯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 의 補中益氣湯과 그 가감방이 항알레르기 및 항균작용에 미치는 영향<sup>15)</sup>, 김의 補中益氣湯의 항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sup>16)</sup>, 강 의 補中益氣湯이 면역세포 배양에 미치는 영향<sup>17)</sup> 등이 있다. 정 등은 동물실험에서 補中益氣湯 엑기스 투여 후 Histamin, serotonin에 의한 혈관투과성반응, 노중 catecholamine 함량 측정, 실험동물의 비장세포 증식의 측정 등을 통해 항알레르기, 항균, 항스트레스, 면역세포 배양 등이 유효하다고 검증하였다.<sup>15-17)</sup> 하지만 이런 증후중심적인 연구들은 補中益氣湯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권에 대한 병인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補中益氣湯證을 중심으로 설문을 개발하는 것이 補中益氣湯證의 임상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Delphi 기법을 응용하여 病因論 관점에서 補中益氣湯證에 대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辨證의 객관성과 정량성을 확보하고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먼저 5종의 醫書<sup>14,22,25-27)</sup>를 채택하여 補中益氣湯과 관련된 조문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34개 조문을 찾았고 이를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질문 형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에게 Delphi 방식에 의한 리커트 7점 척도 설문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설문 조사에서 평균점이 4.0 미만인 항목이 9개로 처방 선택 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2차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나머지 25개 문항에 대해 다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때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 2차에 걸친 설문 조사 결과 25개 문항에 의한 補中益氣湯의 선택 시 변별력이 있

다고 판단된다.

향후 본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의 신뢰도 분석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임상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데 대한 타당도 검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한의학적인 개념이 잘 반영되고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補中益氣湯 변증 설문지를 개발하여 問診의 정량화, 객관화를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 5월 1일에서 2007년 6월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5종의 醫書を 참조하여 補中益氣湯 관련 조문들을 설문형식으로 만들어 1차로 34개 문항을 만들었다.
2. 1차 설문 조사 결과로 34개 문항 중 9개 문항은 변별력이 떨어져 나머지 25개 문항으로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2차 설문 조사 결과 25개 문항 모두 1차와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補中益氣湯 변증 문항으로 변별력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 參考文獻

1.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정보사, 1988.
2. 박영재, 남동현, 박영배. 변증과 자율신경기능의 상관성 연구-피부저항변이도 및 한증, 열증, 허증을 중심으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2; 6(1): 123-134.
3. 김숙경, 박영배. 한열변증설문지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3; 7(1): 64-75.
4. 김숙경. 한열이 심기도의 측정지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4; 8(2): 135-153.
5. 배경미, 조혜숙, 김규곤, 강창완, 이인선. 한방부인과 변증진단 설문지에 대한 평가와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 15(4): 111-127.
6. 김보연, 박경모. 디지털 설진 획득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2; 6(1): 65-78.
7. 양인철, 남동현, 박영배. 맥과전달시간의 변이 계수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2; 6(1): 97-108.
8. 이봉교. 맥진계에 의한 팔요맥의 파형기록 판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신의학. 1970; 13(1): 41-47.
9. 박영재, 박영배. 통계기법을 활용한 변증 정량화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1; 5(2): 306-330.
10. 김숙경, 남동현,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I).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2; 6(2): 141-156.
11. 양동훈, 박영재, 박영배. 어혈변증 설문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5; 9(1): 84-97.
12. 배노수, 박영재, 오환섭,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을 위한 한열 고찰.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5; 9(1): 98-111.
13.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 5(1): 84-97.
14. 김구영. 병인론. 도서출판 선, 2001년.
15. 정동욱. 보중익기탕과 그 가감방이 항알레르



- 기 및 항균작용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1991년.
16. 김태엽. 보중익기탕의 항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1990년.
  17. 강재훈. 보중익기탕이 면역세포 배양에 미치는 영향-전탕액과 약침액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1999년.
  18. 양동훈,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어혈변증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 10(1): 141-152.
  19. 박재성, 양동훈, 김민용, 이상철, 박영재. 담음 변증 설문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 10(1): 64-77.
  20. 이고 외. 동원십종의서. 서울. 대성출판사, 1983, 35, 36, 105.
  21. 윤길영. 동의임상방제학. 서울. 명보출판사, 1985년, 303-307.
  22.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81년.
  23. 황도연. 방약합편. 서울. 남산당, 1985년, 142-143.
  24. 이상인 외. 한약임상응용. 서울. 정보사, 74, 76, 253, 345, 353, 358, 361, 399.
  25. 장개빈. 경약전서. 대성문화사, 1988년.
  26. 이정. 의학입문. 대성문화사, 1982년.
  27. 박찬국. 병인병기학. 전통의학연구소, 1992년, 169-174.
  28. 이상목. 보중익기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1987년.
  29. 염태환. 한방처방해설. 행림출판사, 1967년, 189.
  30. 황도연. 의중손익, p443, 의학사. 1976년.
  31. 한경숙, 박영배. 증후연구 동향분석.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3; 7(1): 55-63.
  32. 한경숙, 김태희, 박영배. 증후연구 동향분석 (II).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3; 7(2): 55-66.
  33. 한경숙, 신상훈, 김태희, 박영배. 증후연구에 관한 문헌적 분석.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4; 8(2): 57-79.

## APPENDIX

### Likert scale of the Delphi Method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 1st Questionnaire for the Delphi panel

임상경력:        년.

아래 질문들은 보충의기탕을 처방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항목들입니다.

본인이 실제 처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세요.

번호	질문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식사를 제 시간에 합니까?							
2	식사량이 항상 일정합니까?							
3	식사를 거르면 힘이 쭉 빠집니까?							
4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하고 피곤합니까?							
5	소화가 잘 됩니까?							
6	입맛이 없습니까?							
7	평소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습니까?							
8	체력에 비하여 일을 무리하게 많이 합니까?							
9	몸이 항상 피곤하고 나른합니까?							
10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합니까?							
11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12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습니까?							
13	일 하고나면 몸이 아프십니까?							
14	땀이 많이 납니까?							
15	일을 하면 숨이 찰니까?							
16	몸에서 열이 자주 납니까?							
17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18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까?							
19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서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20	코피를 자주 흘립니까?							
21	목이 자주 잠립니까?							
22	감기가 자주 걸립니까?							
23	감기가 오랫동안 낫지 않습니까?							
24	소변색깔이 진합니까?							
25	소변색깔이 뿌옇고 탁합니까?							
26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27	설사를 자주 합니까?							
28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29	항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30	(임산부의 경우)임신 중에 복통, 하혈이 있습니까?							
31	(부인의 경우)생리가 아닌데도 하혈이 있습니까?							
32	(부인의 경우)생리량이 아주 많습니까?							
33	(산모의 경우)출산 후 음문이 아래로 빠집니까?							
34	(소아)아이가 5세가 지나도 말을 잘 못합니까?							

상기 문항 외에 본인이 보중익기탕을 처방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질문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2nd Questionnaire for the Delphi panel

임상경력:        년.

아래 질문들은 補中益氣湯을 처방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항목들입니다.

본인이 실제 처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세요.

번호	질문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식사를 제 시간에 합니까?							
2	식사를 거르면 힘이 쭉 빠집니까?							
3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하고 피곤합니까?							
4	소화가 잘 됩니까?							
5	입맛이 없습니까?							
6	평소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습니까?							
7	체력에 비하여 일을 무리하게 많이 합니까?							
8	몸이 항상 피곤하고 나른합니까?							
9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합니까?							
10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11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습니까?							
12	일 하고나면 몸이 아프십니까?							
13	땀이 많이 납니까?							
14	일을 하면 숨이 찰니까?							
15	몸에서 열이 자주 납니까?							
16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까?							
17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서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18	코피를 자주 흘립니까?							
19	목이 자주 잠깁니까?							
20	감기가 자주 걸립니까?							
21	감기가 오랫동안 낫지 않습니까?							
22	항문이 아래로 빠지거나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23	(임산부의 경우)임신 중에 복통, 하혈이 있습니까?							
24	(부인의 경우)생리가 아닌데도 하혈이 있습니까?							
25	(산모의 경우)출산 후 음문이 아래로 빠지거나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상기 문항 외에 본인이 補中益氣湯을 처방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질문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